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7월 11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산업기술개발과 문동민 과장(02-2110-5181), 황중연 사무관(2110-5184) R&D전략기획단 박 훈 실장(02-6009-8500), 이동근 팀장(6009-8721)	

우리산업의 장래 먹거리, 미래선도기술개발 본격 착수

– 디스플레이, 해양플랜트, 인쇄전자 분야 사업단 선정 –

– 총 77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 동반성장 R&D 생태계 구축 –

◇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아바코, 피엑스디 등
◇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GS건설, Khan 등
◇ 인쇄전자용 초정밀 생산시스템: 삼성전자, 주성엔지니어링, LG디스플레이, 하이쎌 등

□ 지식경제부와 R&D전략기획단이 지원하는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사업자로 LG디스플레이·아바코·피엑스디 컨소시엄(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GS건설·Khan 컨소시엄(심해자원용 해양플랜트), 삼성전자·주성엔지니어링·LG디스플레이·하이쎌 컨소시엄(인쇄전자)이 각각 선정되었음.

○ 이들 3개 사업단에는 77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중 67.5%가 이들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원(대기업은 32.5%)되어 대형 미래기술 분야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R&D 생태계를 구축함.

* 유형별 참여기관(총 154개. 세부과제 중복 참여 포함)
– 중소·중견기업 77개, 대기업 31개, 연구기관 15개, 대학 31개 등

□ 지식경제부와 R&D전략기획단은 7.11(수) 오전 10:30, 교육문화회관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황창규 R&D전략기획단장, 3개 사업단 소속 기업 및 기관 대표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사업단 출범 및 협약식을 가졌음.

*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국가선도사업(Future Flagship Program)」으로 추진

□ 미래산업선도기술은 R&D전략기획단이 각계 전문가 700여명의 의견을 모아 발굴한 과제들로, 6년 내외의 개발기간을 거쳐 사업화에 성공하면 매출 260조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기대효과('25년) : 매출 260조원, 수출 210조원, 고용 26만명, 설비투자 유발 65조원

□ 이날 협약체결과 함께 사업단이 출범함으로써 미래산업선도기술은 향후 6년여의 기술개발 단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며, 각 사업단에는 사업기간동안 550~8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임.

[첨부1] 협약식 행사 개요

[첨부2] 선정 컨소시엄 참여 기업·기관 현황

【참 고】"지식경제R&D전략기획단" 작성 상세 설명자료

[첨부 1] 행사 개요

□ 추진배경 : 우리부의 대표적인 대형 R&D사업인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사업' 中 3개 과제의 협약 및 사업단 출범행사

* R&D 전략기획단(단장: 황창규)이 '10.3월 이후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대형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 中

* 금번 협약과제(3개) :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심해자원용 해양플랜트, 인쇄전자용 생산시스템

□ 일시, 장소 : 7. 11(수) 10:30~11:30, 교육문화회관(가야금 홀)

□ 참석자(약 200여명)

○ 지경부장관

○ R&D 전략기획단 : 황창규 단장, 정보통신·주력 MD

○ 과제 참여 기업·기관 대표 및 연구 참여자

- (주)LG디스플레이 여상덕 부사장, (주)아바코 성득기 대표이사
- (주)현대중공업 이충동 부사장, Khan(주) 현장환 대표이사
- (주)삼성전자 유인경 부사장, 하이쎌(주) 윤종선 대표이사

□ 주요 행사내용

○ 지경부장관 격려사

○ 사업내용 및 사업단 소개

○ 협약서 서명, 출범 퍼포먼스

○ 기념 촬영 등

[첨부 2] 선정 컨소시엄 참여기업 · 기관 현황

①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과제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	LG디스플레이(주)	
1세부	LG디스플레이(주)	LG화학, LG하우시스, 코오롱, LG전자, 동진쎄미켐, 코텍, 케이알이엠에스, 디엠케이, 케이엔더블유, 경희대학교(2), 한국과학기술원, 호서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2세부	(주)아바코	주성엔지니어링, 고려반도체시스템, 나래나노텍, 디오브이, 지엔티시스템즈
3세부	(주)피엑스디	(주)서버사이드, 전자부품연구원

②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과제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	현대중공업(주)	
1세부	대우조선해양(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TX종합기술원, GS건설, UIT, 태성, Khan, 지노스, HSS, DSR, 미래산업기계, 한국에너지재료,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울산대학교, KAIST, 한국선급
2세부	GS건설(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종합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앱스필, DMC, 강림중공업, 동화엔텍, 데카텍, 마펙플랜트건설, 선보공업, 에이엠티퍼시픽, 전진엔텍, 주인정보시스템, Khan, 코맥이엔씨, 퍼스텍
3세부	Khan(주)	현대중공업, DSME, KIGAM, ABS, 성일, UIT, PSE, KAIST, POSCO, LS전선, RIST, 스틸플라워, 일진제강, 세진중공업, 성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코밸, DMC, 대창메탈, 에이스브이
4세부	현대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KT서브마린, Khan, 아쿠아드론, 썬컴정보, 에드백트, 한국해양연구원, KAIST, 한양대, GLND

③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 시스템

과제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	삼성전자(주)	
1세부	주성 엔지니어링(주)	디바이스이엔지, ㈜지엠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영남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제주대학교, KAIST
2세부	삼성전자(주)	삼성정밀화학, 동우화인켐, 나노신소재, 에스에프에이, 케이씨텍, 유니젯, 파루, 한국기계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순천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국인쇄전자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3세부	LG 디스플레이(주)	나래나노텍, LG전자, LIG ADP, HPK, KAIST, 동진쎄미켐, 아이컴포넌트, KNW,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4세부	하이쎌(주)	㈜에스아이티, ㈜에프피, 성안기계(주), ㈜미루시스템즈, ㈜피에스엠, ㈜피엠씨, 건국대학교(3), 국민대학교, 안동대학교

* 세부과제에 중복 참여하는 기관도 있음

【참고】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 작성 상세 설명자료

SMARTOPIA KOREA!
beyond Greater, towards Greatest...

- 3대 "신시장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사업단 공식 출범 -
(지경부,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공동 주관 협약식 개최)

□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해양플랜트, 인쇄전자 등 3개 사업단 출범

- 총 154개 기관 (대기업 31, 중소·중견기업 77, 대학 31, 연구소 15 등) 동시 참여
- 2025년 기대 효과 : 매출 260조원, 수출 210조원 (올해 예상 총수출의 30% 수준), 고용 26만명, 설비투자 유발 65조원

※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 대면적(60인치 이상) UD*급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부품 및 응용제품 공히 세계 최초 상용화 도전

※ 해양플랜트

– 심해 자원의 채굴, 분리·이송, 전처리 및 저장·하역이 가능한 친환경·지능형 해양 플랜트 Total Solution 국산화로 2020년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선도 국가 도약 목표

※ 인쇄전자

– 전자소자 및 에너지소자를 저비용으로 연속 대량 생산하는 인쇄전자 산업 구성 요소인 소자/장비(공정)/소재 기술의 Total Solution 확보로 2020년 인쇄전자 산업 글로벌 리더십 확보

□ 산·학·연 망라한 대한민국의 R&D 역량을 총결집, 국가 R&D를 통해 '대한민국형 동반과 균형'의 Best Practice 구현

- 엄정한 심사를 통과한 산·학·연 각 R&D 기관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결합

□ 과거와는 차별화된 "동반과 균형" 전략

- "대한민국發 글로벌 표준"의 가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초기 시장 선점이 어려운 사업인 경우, 정부가 초기 시장 리스크를 분담
- 대기업 납품 위주 구조를 가진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통로를 찾아 주는 역할을 정부와 대기업이 담당

(중소기업 수출 비중 2001년 43%를 정점으로 최근에는 30% 초반 대까지 하락)

□ 사업단 전략 방향

①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역할 분담을 통해 산업 생태계 완성 추구
- 중소기업의 사업단 참여 비율 50%

② 국가 R&D 참여를 통한 과학 기술계 일자리 확충에 매진
- 국가 R&D 참여시 신규인력 채용 의무화, 고용 촉진형 인건비 지원 제도 적용
- 국가 R&D 전담 연구원 지원 확대, 대기업 연구 인력의 중소·중견 기업 파견제 등 제도화 추진

□ 국가 R&D 프로세스 혁신

① 기획·원천 개발단계 정부 주도, 응용 개발단계는 기업 주도
- 정부 부담 : 기획 100%, 원천 70%, 응용 30%

② 철저한 사업계획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경쟁 시스템 도입
- 각 사업별 2배수 경쟁 기획 추진

③ 지적재산권은 개발자 소유 원칙

- 목 차 -

1. 협약식 개요

2. 추진 경과

3. 신시장창출형 사업 개요

1)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2)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3)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 시스템

4. R&D 프로세스 혁신

5. 사업단 출범의 의의

6. 사업단 구성

7. 사업단 전략 방향

8. 결 론

1. 협약식 개요

□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단장 황창규)은 7월 11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황창규 R&D 전략기획단장, 그리고 "신시장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사업단으로 선정된 대·중소·중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3개 사업단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이 수립한 "국가 R&D 메타플랜"인 미래산업선도기술은 3~5년 內 사업화를 목표로 한 "조기성과창출형"과 5~7년 후 신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는 "신시장 창출형" 등 두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 "조기성과창출형"의 경우, 작년 7월 5개 사업단*이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과 협약을 마치고 현재 사업 추진 中에 있으며,

* 註) 천연물 신약, IT 융복합 기기용 핵심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기반의 그린수송 시스템, 고효율 대면적 박막 태양전지, K-MEG(Korea-Micro Energy Grid))

이 날 협약식은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해양 플랜트, 인쇄전자 등 3개 "신시장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 사업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 추진 경과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이 자동차, 선박, 반도체, 휴대폰, TV 등 주력산업이 골고루 발전한 나라 중 하나이나, 5~10년 뒤에도 이 산업들이 지금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의 주력 산업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이 기반 위에 우리 실정 및 문화에 적합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조기에 사업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필수 과제다.

즉, 대한민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 또 대한민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은 담은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早期에 이를 "대한민국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드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 R&D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산업별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MD (Managing Director)가 주축이 되어

①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문화 적합성 및 역량 분석 결과를 반영한 신성장 동력 발굴

② 발굴된 신성장 동력의 글로벌 적합성 검증

③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기술 강국의 R&D 사례 벤치마킹

④ 세계 석학으로 구성된 18명 해외자문단으로부터의 체계적인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1년 3월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을 선정한 후,

'11.12월~'12.4월에 걸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해양 플랜트, 인쇄전자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경쟁 기획을 실시하였으며,

'12.6월 사업자 선정 평가를 완료하여 오늘 최종 협약에 이르게 되었다.

3. 신시장창출형 사업 개요

□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해양 플랜트, 인쇄전자 등 3대 "신시장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로 2025년 매출 260조원, 수출 210조원 (올해 예상 총 수출의 30% 수준), 고용 26만명, 설비투자 유발 65조원이 기대된다.

1)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 사업 개요

- 대면적(60인치 이상) UD*급 투명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사용자가 대화하듯 입·출력 가능한 시스템 개발

* UD(Ultra Definition) : 3840x2180의 초고해상도로 풀 HD (Full High Definition) 1940x1080 해상도의 4배



□ 추진 배경

- TFT-LCD 이후 성장이 둔화된 디스플레이 산업은 실감화, 경량화, 박형화, 다기능화 등의 추진으로 제 2의 도약 필요
- 실감 화질, 사용 편의성 등의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부품 및 응용제품 공히 세계 최초 상용화 도전
- 한국이 강한 IT 인프라와 연계 개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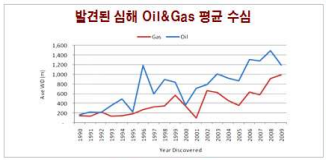
□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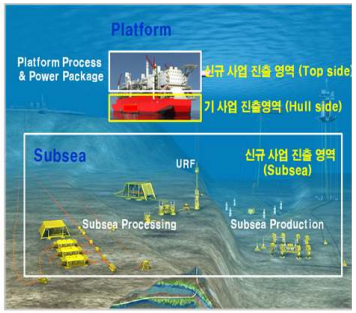
-'25년 매출 82조원, 수출 63.2조원, 고용 8.4만명, 설비투자 23.6조원 유발

2)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 사업 개요

- 3,000m급 친환경 심해 해양플랜트의 해저/해상 통합 엔지니어링, 핵심 기자재, 설치 기술 개발
- 심해 자원의 채굴, 분리·이송, 전처리 및 저장·하역이 가능한 친환경·지능형 해양 플랜트 Total Solution 국산화로 2020년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선도 국가 도약 목표





□ 추진 배경

○ **對중국 차별화**

- 중국의 추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신개념 대용량·고효율·친환경 기술의 조기 개발로 조선 및 플랜트 산업 경쟁력 강화 시급

○ **시장 환경변화 대응**

- 과거 해상/해저 분리 발주에서 통합 발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기술 개발 및 토탈 솔루션 확보를 위한 R&D 투자 필요

○ **조선, 플랜트, 철강, 기계, 전자, 화학 등 연관 산업 경쟁력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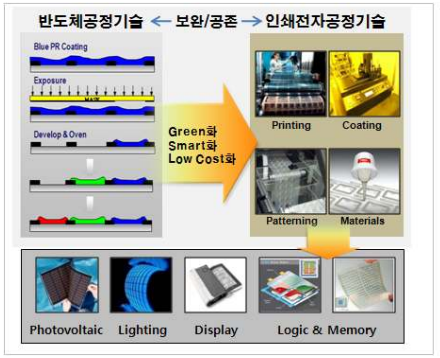
□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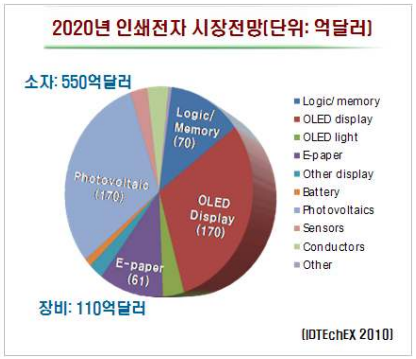
-'25년 매출 102조원, 수출 100조원, 고용 11.5만명, 설비투자 24.6조원 유발

3)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 시스템

□ 사업 개요

- 전자소자 및 에너지소자를 유연기판 위에 인쇄하여 연속 대량 생산하는 기술 개발 (박막태양전지, 디스플레이, RFID 등 생산)
- 인쇄전자 소자/장비(공정)/소재 기술의 Total Solution 확보로 2020년 인쇄전자 산업 글로벌 리더십 확보





□ 추진 배경

- 소재에서 부품, 완제품 및 서비스까지 연계된 Total Solution 개발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
- 디스플레이, IT, 태양전지 등 대규모 수요 산업 보유
- 우리나라는 롤 기반 프린팅 및 코팅 등 핵심 기술과 우수 장비기술을 旣 보유하고 있어 패터닝 기술 등을 추가 획득할 경우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 가능

□ 기대 효과

-'25년 매출 77조원, 수출 50.7조원, 고용 6.4만명, 설비투자 24.6조원 유발

4. R&D 프로세스 혁신

□ 금번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 사업은 다음 원칙 下에 진행되었다.

① 민관 합동 대형 R&BD의 성격을 띠고 있다. R&D 프로세스 中 기획·원천 개발 단계는 정부가, 응용 개발 단계는 기업이 주도하도록 설계되었다. (정부 부담 : 기획 100%, 원천 70%, 응용 30%)

② 철저한 사업계획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각 과제별 2배수 경쟁 기획 추진).

③ 기획→개발→사업화→사후관리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해당 산업을 총괄하는 R&D 전략기획단 소속 MD(Managing Director)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④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및 출연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였다.

5. 사업단 출범의 의의

□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2001년 43%를 정점으로 최근에는 30% 초반 대까지 하락 (독일 80%, 대만 56%) 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상황이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소홀히 해서는 선진국 진입이 요원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까지와는 차별화된 "동반과 균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즉,

①"대한민국發 글로벌 표준"의 가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초기 시장 선점이 어려운 사업인 경우, 정부가 초기 시장 리스크를 분담하며,

② 대기업 납품 위주 구조를 가진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통로를 찾아 주는 역할을 정부와 대기업이 담당토록 하는 R&D 제도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6. 사업단 구성

□ 3개 사업단 전체 기준, 총 154개 기관 (대기업 31, 중소·중견 기업 77, 대학 31, 연구소 15 등)이 동시에 참여, 산·학·연을 망라한 대한민국의 R&D 역량이 총결집된 명실상부한 "국가 R&D 메타 플랜"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글로벌 경쟁 잠재력을 지닌 중소·중견 기업을 엄정하게 선별한 후 이들에 한해 집중 지원하는 "R&D 혁신 프로세스"를 설계하였음은 上述한 바와 같다.

그 결과, 성장 잠재력과 R&D 의지를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사업단 참여 비율과 이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출연금 할애 비율이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업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중 67.5%가 중소·중견 기업에게 지원된다.

즉,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이들이 조기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금번 사업단 출범의 궁극적인 목표다.

7. 사업단 전략 방향

□ 금번 "신시장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 사업단은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과학기술계 일자리 창출"** 이라는 두가지 전략 방향을 가진다.

□ 첫째, 3개 사업단 공히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의 역할 분담을 통해 산업 생태계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

<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

- 대기업 : 대면적 고해상도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패널 및 모듈 개발
- 중소·중견기업 :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소재 및 UI(User Interface) 기술 등 개발

< 해양 플랜트 >

- 대기업 : 지능형 심해 Oil & Gas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및 Floating Platform Topside 친환경 시스템 기술 개발
- 중소·중견기업 : Subsea Production & Processing 시스템 기술 및 심해 Oil & Gas 플랜트 설치 기술 개발

< 인쇄 전자 >

- 대기업 : OLED조명, Digital Signage, Active Wallpaper, FPCB (연성회로기판) 기술 개발
- 중소·중견기업 : Roll-to-Roll 인쇄 기술 이용한 FPCB용 연속 생산 시스템 개발

□ 둘째, 다음 내용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여 국가 R&D 참여를 통한 과학 기술계 일자리 확충에 매진한다.

- 대 기 업 : 국가 R&D 참여시 신규인력 채용 의무화, 중소기업 인력 교육훈련 실시 등
- 중소기업 : 고용 촉진형 인건비 지원 제도 적용
- 출 연 연 : 총인건비 한도內 인원 자율 운영 (T/O 관리 폐지)
- 대 학 : 국가 R&D 전담 연구원 지원 확대
- 대기업 연구 인력의 중소·중견기업 파견제 도입
  ·대기업 연구원(인건비는 대기업 현물 부담)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공동연구 체제를 강화하여 "동반성장 R&D 생태계" 조성

8. 결 론

□ "부지런히 선진국을 쫓는 나라" 라는 한국의 이미지가 문화, 스포츠, 주력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나라"로 진화 中이다.

우리의 과학 기술도 지금의 이 여세를 몰아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결국 과학 기술이 그 열쇠를 쥐고 있으니만큼, 어떻게 하면 온 나라를 과학하는 분위기로 만들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최상의 과학 기술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것인지 등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동반과 균형"이란 대기업의 경쟁력을 희생 혹은 위축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개념이 아니다.

동일한 사업에 국가 R&D의 주체인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연구소, 대학을 함께 참여시켜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화 성공을 이끌어 내도록 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대기업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시키면서 중소기업과 凡연구계의 경쟁력 확보 역시 동시에 실현시키는데 궁극의 목적이 있다.

□ 금번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 사업 협약식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그리고 주력 산업과 신산업이 균형적 발전을 이루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요건을 차근차근 갖추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